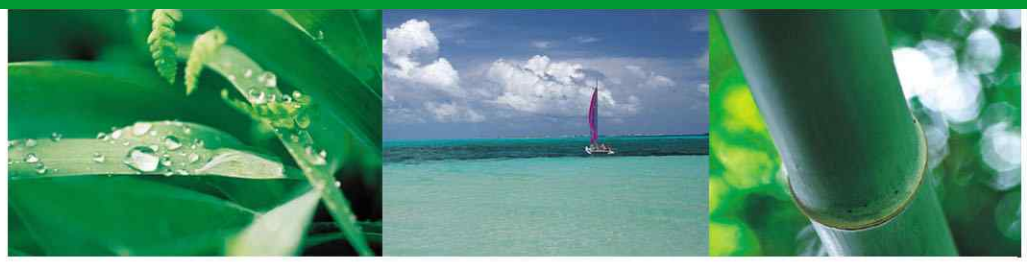
주간건설 Review

666호 2021.3.19(금)



(사)한국건설경영협회
KOREA FEDERATION OF CONSTRUCTION CONTRACTORS
홈페이지 : http://www.kfcc.or.kr, 연 락 처 : 02-771-7936
주 소 : (121-916) 서울 마포구 공덕동 467 롯데캐슬프레지던트 101-2103

주간건설 Review

CONTENTS

▣ 업계 동향

- 대우건설, 한국해비타트와 주거환경개선 업무협약
- HDC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브랜드 리뉴얼
- 포스코건설, 해양경찰청과 해양오염방지 캠페인
- 롯데건설, 주니어 보드 신설해 MZ세대와 소통확대
- HDC현대산업개발, '베스트 파트너스 데이' 개최

▣ 건설경제 일반동향

- 2020년 SOC 예산 미집행액 약 1조원

▣ 건설 제도·정책 동향

- 정부 공사비 산정 신뢰도 제고 추진
-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 동향
- 정부, '해외수주 보강대책' 마련 추진

주간 건설 REVIEW

<기간 : 2021.3.13(토)~2021.3.19(금)> 제666호 2021.3.19(금)

<업계 동향>

◈ 대우건설, 한국해비타트와 주거환경개선 업무협약

윤형주 한국 해비타트 이사장과 김형 대우건설 대표이사(왼쪽부터)

○ 3월16일 대우건설은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한국해비타트와 국내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음

○ 김형 대우건설 대표이사와 윤형주 한국 해비타트 이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협약에서 대우건설은 한국해비타트가 추진하는 주거빈곤 퇴치, 도시재생 등의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로 하였음

○ 또한 대우건설은 현재 진행 중인 국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더해 올해 처음으로 베트남 등 해외에서 건축봉사를 시작하기로 하였음

○ 한편, 대우건설은 2001년부터 '희망의 집 고치기' 등 캠페인을 통해 주택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정의 시설 보수 작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한국해비타트 서울지회와 협업해 봉사 활동의 규모를 확대해 2천여명의 임직원이 100회 이상의 봉사 활동에 참여하였음

◈ HDC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브랜드 리뉴얼

○ 3월15일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이파크(IPARK) 출시 20주년을 맞아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리뉴얼했다고 밝혔음

Premium Life Platform IPARK

HDC현대산업개발이 새로 선보인 아이파크(IPARK) BI

○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이파크 리뉴얼을 통해 '삶의 품격을 경험하는 프리미엄 라이프 플랫폼'으로 BI(Brand Identity)를 재정립하고 로고 디자인 리뉴얼도 단행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행복을 주고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공간'이란 브랜드 비전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프리미엄 브랜드로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담았음

○ HDC현대산업개발은 아이파크의 고객들에게 이번 브랜드 리뉴얼 지향점인 '프리미엄

라이프 플랫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스마트 컨버전스 시대에 맞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리뉴얼된 아이파크는 향후 분양단지와 입주 단지에 순차적으로 적용될 계획이라고 밝혔음

◈ 포스코건설, 해양경찰청과 해양오염방지 캠페인

○ 3월15일 포스코건설은 해양경찰청과 함께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음

○ ESG경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포스코건설은 해양환경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해양오염예방 아이디어 공모전 △청소년 대상 해양환경 교육 및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SNS 홍보 △해양정화 활동 △해양오염예방 UCC 공모전 등 활동을 펼칠 계획

○ 그 일환으로 해양경찰청, 한국어촌어항공단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1회 해양오염예방 아이디어 공모전'은 △선박 · 해양시설의 기름 불법배출 예방 △일터·가정에서의 탄소 중립 실현 △어망 무단투기 방지 등 쓰레기 없는 바다 만들기 등 3개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공모할 예정

○ 바다를 사랑한다는 의미로 '사랑海 바다SEA'로 명명된 이번 공모전에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는 3월15일부터 5월14일까지로 입상자 10팀에게는 대상 500만원을 비롯해 총 천만원의 상금을 지급함

◈ 롯데건설, 주니어 보드 신설해 MZ세대와 소통확대

○ 3월12일 롯데건설은 경영진과 젊은 직원들의 소통창구인 '엘-주니어 보드(L-junior Board)'를 신설했다고 밝혔음

○ 본사와 현장에 근무하는 20~30대 직원 20명으로 구성된 '엘-주니어 보드'는 향후 기업의 중심축에서 조직을 이끌 구성원인 동시에 MZ세대(1980년 초반 이후 출생한 세대)로, 변화하는 소비 형태를 가장 가깝게 이해하

하석주 대표이사(첫 번째 줄 왼쪽에서 네 번째)와 엘-주니어 보드 구성원들

고 미래산업 주요 고객까지 대표하는 세대라고 롯데건설은 설명하였음

- ‘엘-주니어 보드’는 지난 3월10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본사에서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와 타운 홀 미팅을 갖고 롯데건설의 비전과 기업문화 개선에 대해 토론하였음
- 롯데건설은 주니어 보드를 통해 젊은 세대 트렌드를 기업문화에 접목하고, 2030 직원들의 목소리를 수렴해 전사 업무 프로세스에 적용할 예정이며, 특히 CEO와의 핫라인을 구축해 중간 허들 없이 직접 소통하는 자유 토론을 매달 진행할 계획

◈ HDC현대산업개발, ‘베스트 파트너스 데이’ 개최

- 3월12일 HDC현대산업개발 서울 용산구 본사에서 ‘베스트 파트너스 데이’를 열고 지난해 우수협력사로 선정된 우수협력사 5개사에 5000만원씩 총 2억5000만원을 포상금과 표창패를 전달하였음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왼쪽에서 세 번째)와 우수협력사 대표들

- 이날 행사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와 우수협력사 대표 등 최소인원만 참석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개정한 4대 실천사항을 준수한다는 내용의 공정거래 협약서 서명식도 함께 진행되었음
- 특히 올해 우수협력사에 대한 입찰 인센티브 혜택을 신설한 HDC현대산업개발은 AAA등급으로 선정된 협력사에는 수의계약 기회 제공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AA등급 협력사에는 상생 포상금이 지급된다. 계약보증 감면, 입찰기회 확대 등은 A등급 이상 협력사에 모두 제공할 예정
- 이날 권순호 대표이사는 “공정거래와 공정경쟁을 통해 건설시장의 질서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실질적 상생협력을 위해 인센티브 제도와 온라인 교육지원 등 협력사의 역량 강화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음

◈ 2020년 SOC 예산 미집행액 약 1조원

○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부처의 SOC 예산 집행액은 총 44조7257억44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45조6380억4200만원) 대비 집행 잔액은 9122억9800만원을 기록해 1조원에 가까운 SOC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정부가 노후 기반시설의 성능개선과 시설물의 안전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SOC 예산 중 노후·안전에 대한 재정집행은 소홀했다는 평가와 함께 국민 안전 확보와 미래 투자비용 절감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집행에 나서 이·불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

<주요내용>

❒ **현황**

- 2020년 중앙부처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SOC 관련 예산현액은 총 45.6조원으로 이 중 98.0%, 44.7조원이 집행되었으며, 9,123억원은 미집행

<2020년 SOC 관련 예산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회계	분야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집행잔액
SOC 관련 예산	일반회계	국토 및 물류	18,386,193	18,321,922	99.7%	64,271
		국토 및 지역개발	6,603,270	6,449,133	97.7%	154,137
	합계		24,989,463	24,771,055	99.1%	218,408
	특별회계	교통 및 물류	18,223,820	17,651,604	96.9%	572,216
		국토 및 지역개발	2,424,759	2,303,085	95.0%	121,674
	합계		20,648,579	19,954,689	96.6%	693,890
총계			45,638,042	44,725,744	98.0%	912,298

주 : 1) 2020년 12월31일 일별집행실적 기준임
2) SOC 관련 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가 포함된 교통 및 물류 분야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합산금액임
3) 예산현액은 예산액, 이월액, 이·전용 등 증감액의 합산금액임

자료 : 기획재정부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총 25.0원의 가운데 99.1%인 24.8조원이 집행되었으며, 교통시설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의 특별회계는 총 20.6조원 가운데 96.6%가 집행됨
- 분야별로는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총 36.6조원 가운데 98.3%인 36.0조원이 집행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90.3조원 가운데 96.9%를 집행
- 정부 부처별 SOC 관련 예산 집행률은 기획재정부(100%), 환경부(99.1%), 국토교통부(98.1%)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행정안전부(87.2%)가 가장 낮았음
- 특히, 집행 잔액이 50억 이상인 사업들은 도로 유지보수, 위험도로 개선, 교통 혼잡도로 지원 등으로 다수가 노후·안전 관련 사업비임
- 교통시설특별회계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노후·안전 등과 관련된 예산의 집행이 저조하며, 도로 유지보수사업,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사업, 위험도로 개선사업 등은 집행률이 95% 수준으로 높으나 집행 잔액은 사업당 50억원을 상회

❒ **시사점**

- SOC 투자는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경기 위축시 재정승수 효과, 일자리 창출, 고용증가 등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난해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으로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가한 상황
- 경기 회복을 위한 SOC 투자 확대가 어려운 만큼 이미 확보된 예산의 적극적인 집행으로 재정지출 확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노후·안전 관련 사업비는 국민의 안전과 더불어 미래 투자비용의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재정집행을 최대화하는 것이 필요

◈ 정부 공사비 산정 신뢰도 제고 추진

○ 3월18일 조달청은 시장가격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반영해 정부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정부 공사비 산정 신뢰도 제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발표

○ 지난해 11월 건설업계는 조달청장 간담회에서 업체들이 실제 시장에서 구매하는 자재 가격을 반영해 공사비를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조달청은 '정부 공사비 신뢰도 제고'를 올해 중점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시장가격을 신속.적정하게 공사비 산정에 반영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준비해 왔음

○ 한편, 그동안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정부 공사비가 시장가격과 거리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주요내용>

❒ **신규자재 및 공법 등에 대한 가격산정기준**(시장시공 일위대가) **마련**

- 자주 사용하지만 품셈 등 가격산정기준이 없는 자재.공법에 대해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구성된 시장시공 일위대가(일정 공정에 소요되는 재료, 노무량 등을 반영하는 산식을 만들어 공사비 산정)를 마련하여 적용키로 함

- 이를 통해 가격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가격 변동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게 되며, 시장시공 일위대가를 공개함으로써 발주기관, 설계용역업체 등이 임의로 공사비를 삭감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

❒ **시중물가지의 시장거래가격 적용 확대**

- 가격조사 전문기관이 조사한 시장의 거래실례가격에 해당하는 시중물가지의 시장거래가격 적용을 확대

- 올해는 조달청 적용가격과 15%P 이상 차이가 나는 품목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게 되며, 앞으로 점진적으로 시장거래가격 적용품목을 확대하고 가격적용 비율도 상향

❒ **원자재 가격에 민감한 품목의 가격 변동 적기 반영**

- 철강, 석유화학 등 원자재 가격 변동에 민감한 자재에 대해서는 월별(현재는 연 2회) 가격 변동을 파악해 공사비에 반영

- 가격조사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원자재 가격변동을 매월 분석·적용함으로써 시장가격을 최대한 신속하게 반영할 계획

❒ **표준일위대가 발굴.공개 확대로 공사비 임의 삭감 방지**

- 표준품셈* 기반의 표준일위대가를 작성.공개하여 설계용역업체 등이 사용하도록 유도해 소요인력, 재료량 등을 근거 없이 삭감**하지 못하도록 한다.

** 표준품셈 : 보편·일반화된 공종.공법에 활용되는 소요인력, 재료량 등을 제시한 것으로 단위작업 당 원가를 곱하여 총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활용*

*** 예 :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실제 소요인력의 70%만 반영하여 공사비 삭감*

❒ **간접노무비 및 기타 경비 현실화**

- 기존 완성공사 원가통계 분석 결과에 공사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간접노무비와 기타 경비율을 결정함으로써 실제 공사 현장과의 차이를 최대한 줄이도록 할 예정

** 대한건설협회 주관으로 공정률 80% 이상 400여 개 현장을 실태조사('20.10.~12.)*

❒ **기타 : 가격조사 방법 개선, 업계와의 협업 강화 등**

- 품목별로 조사주기를 달리하는 순환식 가격조사로 조사 효율성을 높이고, 가격견적 외에 물량견적 방식*을 도입해 가격변동에 적극 대응

* 일정 공정을 수행하는데 얼마(금액)가 드는가가 아니라 얼마만큼의 양(자재, 노무 등)이 드는가에 대해 견적을 받는 방식

- 조달청 적용단가와 현장 적용단가가 차이가 나는 경우 관련 협회가 직접 수정 의견을 내도록 하고, 조달청 관리 현장의 하도급계약 정보 등도 활용해서 적정한 시장가격을 반영
- 분야별 건설협회로부터 공사비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업체를 추천받아 가격조사와 검증에 활용

◈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 동향

○ 3월19일 국토교통부는 건설사업자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건설규제 완화와 건설현장의 부조리 및 불법 행위 처벌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3월19일 입법예고

○ 동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4월 28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건설산업기본법은 국회에 상정하고, 하위법령은 6월까지 확정·공포할 예정

<주요내용>

❒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상향 조정**(법 제82조제1항)

- 건설사업자의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계약규모 증가에 따라 상향(1억원 → 2억원)하여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현실화

❒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3진 아웃 추가**(법 제83조제7호)

- 불법하도급(일괄, 동종, 재하도급)으로 처분을 받고 5년 이내 다시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말소(3진 아웃제) 하고 있으나, 적정한 시공을 저해하는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제외되어 있어 이를 3진 아웃제에 포함

❒ **건설기술인 중복배치 및 무단이탈 시 처벌 강화**(법 제97조 및 영 별표 7)

-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강화를 위해 발주자의 승낙없이 다른 현장에 중복 배치한 경우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와 동일하게 건설사업자를 처벌받도록 하고,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건설현장을 무단이탈할 경우 건설기술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을 상향 조정(30만원→50만원) 하는 등 건설현장 시공관리 강화

❒ **건설업 교육기간 유예 도입**(법 제9조의3 제1항)

- 코로나19 등 전염병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건설업 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유예기간을 정하여 교육을 유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시공능력평가 기성실적 서류 간소화 및 직접시공실적 가산 확대**(규칙 제22조, 별표 1·2)

- 민간 발주 소액공사 기성실적 증빙 서류를 전자세금계산서로 갈음하여 실적증명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불편 해소
- 직접시공 활성화 및 건설근로자의 체불 방지를 위해 직접시공 실적 가산 확대(10→20) 및 상습체불주에 대한 감점 대폭 확대(2→30)하는 등 신인도 항목을 일부 조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건설근로자 등록기준 인정**(영 제79조의2)

- 출산율 제고와 건설근로자의 경력단절 방지 및 고용안정성 개선을 위해 육아기 단축 중인 건설근로자를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으로 인정

◈ 정부, '해외수주 보강대책' 마련 추진

○ 3월15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부총리 주재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1년 상반기 중 '해외수주 보강대책'을 마련키로 함

○ 이는 각국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올해 해외인프라 시장이 전년 대비 8.1% 증가한 11조9000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코로나19, 국제유가 등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함에 따른 것

○ 정부는 우선 2020년 상반기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을 통해 목표한 1000억 달러 규모의 30대 핵심프로젝트의 동향을 점검하고 사업발굴과 금융지원 등 정책수단을 보완·강화하고, '팀코리아'를 통해 △코로나19 방역 지원 △금융지원 △사업 발굴·기획 강화 등 수주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

<주요내용>

❒ **방역 지원**

-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Team Korea 수주지원단을 현지에 파견하는 한편, 해외현장 방역 및 출입국 지원 지속
- 해외 수주계약 등을 위한 필수출장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백신 우선접종 지원
- 각국의 정치적 리스크로 인한 프로젝트 지연가능성 모니터링 및 대응도 병행(예: 미얀마)

❒ **프로젝트 관리**

- 해외 인프라 수주·투자지원 협의회를 통해 핵심 프로젝트 동향 점검·관리하고, 고위급 경협채널을 활용한 수주 지원

❒ **금융지원**

- (펀드) 글로벌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펀드(PIS, 1.5조원) 추가재원 조성 및 투자, 글로벌인프라펀드(GIF 4~7호, 0.4조원) 투자 활성화
- (수은 특별계정) 지원국 및 지원분야 지속 확충

  * 국가 신용도가 낮아(B+ 이하) 수은 일반계정으로 지원이 곤란한 저신용국의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19.5월 계정 신설, '21년 1조원 조성 완료)

  ** '19.12월 1호 사업 승인(나이지리아 LNG, 4,500억원) → '21년 중 2호 사업 승인 추진
- (경협증진자금) 지원확대를 통해 개도국 인프라 수주기반 확충

  * 경협증진자금 : 수출입은행이 개도국에 대출소요비용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 소요비용과 지원금리간 차이를 정부재원으로 보전하는 금융지원 수단

  ** '21년 중 (1)인니 도수로 사업, (2)이집트 철도 현대화 사업 승인 추진
- (수출보험) 국내 수주기업이 보유한 수출채권(상환기간 2년 초과)의 조기 현금화 지원을 위한 중장기수출보험 지원 개시('20.12월 도입)

  * 중장기수출보험 : 국내기업으로부터 금융기관이 수출채권을 매입한 후, 매입한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무보가 손실보상 → '21.上 파나마 메트로 사업 최초 지원예정

❒ **정책자문**

- G2G 정책자문, ODA 등을 통해 후속사업 수주로 연계 강화
- 경제혁신파트너십 프로그램(EIPP)*, K-City Network** 등 상대국 정책자문을 통해 잠재 프로젝트 기회 선점

  * Economic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 : 대형 인프라 관련(수도이전, 스마트시티 등) 계획 수립·제도 구축 등을 종합 지원하는 중장기(3년 이상)·심화(연 4~5건) 정책자문

  ** K-City Network :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 확산을 위해 국제공모를 통해 G2G 협력사업을 선정하고, 사업발굴·개발·기술 전수 등을 패키지로 지원
- 우즈벡·인니·미얀마 대상 EIPP 2차년도 심층자문을 통해 구체적 사업화를 도모하고, 케냐와의 신규 자문 착수('21. 上)

- ’21년 K-City Network, 사업 발굴(’21.2~4월, 국제공모)하고, 마스터플랜, 타당성조사, 초청연수 등 지원

❒ **인력양성**

- 사업발굴·기획, 리스크 관리 및 금융구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조율·관리할 전문인력 양성과정(’20년 신설) 지속 추진

❒ **컨설팅**

- 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21.5월), 글로벌인프라협력 컨퍼런스(’21.9월), MDB 프로젝트 플라자(’21.11월) 등 정보제공, 컨설팅 강화